



교통사고 사건수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통위반 지도단속



교통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사건수사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등, 중대 교통사고에 직결되는 교통위반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건,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금사기 사건의 검거 등, 악질적이고 위험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나 특정 소형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의 이용자에게 승차용 헬멧의 착용을 촉구하고 차도 통행의 원칙 등의 교통법규 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신호위반이나 일시정지 위반 등의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의 정비

자동차가 안전하게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 관리자와 협력하여 차도의 좌측끝에 구조적·시각적으로 분리된 자전거 전용 통행대 등의 자전거 통행 공간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의 통행 위치와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자전거 네비 마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도로에 있어서의 보행자나 자전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을 정해서 시속 30킬로의 속도 규제와 각종 안전 대책을 조합하여 실시하는 '존 30'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호 교차점에서의 안전대책으로 '보행자 차량 분리식 신호기'나 고령자·장애인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여유 신호', '음향식 신호기'를 정비하며 운전자에게 횡단 보행자 등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표지병을 설치하는 등, 각종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차 수요에 따라 도로상에 시간제한 주차구간(파킹 미터 등)을 확보하는 등, 불법주차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관제센터는 도내 및 인근 현의 도로교통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과 함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신호조정 등을 실시해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네비 마크



보행자 차량 분리식 신호등



캐시리스 결제도 가능한 주차권 발급기



교통관제센터

교통관제센터에서는 견학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예약제)



'존 30'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